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적 품종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사찰 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해 식탁의 안전과 우리농촌을 살리는 실천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생(共生)·상생(相生)의 생활 문화로 뿌리내리고 있다. 봉은사 생협 매장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고르고 있는 불자들. 사진=고영배기자



○생태공동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생명으로 삼는다. 전북 남원 실상사 생태공동체 주민들이 농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배추를 묶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일보

창바구니 들고 절에 간다 사찰 생활협동조합 무공해 먹거리 '풍성'

16일 오전 11시40분 서울 강남의 봉은사. 법회를 마친 한 무리의 불자들이 사찰 입구 일쪽편 한 구석으로 몰려 들었다. 왈칵 쏟아지는 소리. 무엇인가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이 꼭 시장을 연상케 한다.

"이 시금치는 맛이 달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걸음이 무척 먹어도 그만이고..." "값이 좀 비싼데... 밑을만 하긴 한건가?" "이게 뭐가 바사. 유기농 시금치네. 무척 깨끗해 먹어도 맛부터 달라 사서 먹어봐"

송과구에 사는 석보살(44)은 오늘도 절에 오면서 창바구니를 챙겼다. 입구앞에 세 번 정도는 이곳에서 장을 본다. 석보살은 봉은사에 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열리고 나서도 바로 이용하지는 못했다. 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평균 20%정도 비싸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4kg들이 일반쌀이 1만~1만2천원인데 비해 유기농쌀은 1만5천원이나 되고, 배추와 무도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이 포기나 개당 400~500원 가량 더 비쌌다.

하지만 석보살은 처음 생각이 달라졌다. 건강에도 좋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보살은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면서 다소 늘어나는 부식비 규모는 좀 더 알뜰하게 가게를 운영하면 보충할 수 있을

직관하니 믿을 수 있고 따로 시장엘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찰내에서 유기농산물을 직판하는 생활협동조합은 봉은사를 비롯해 능인선원·영화사·수원포교당·광명 금강정사·부천 석왕사 등 전국에 걸쳐 모두 6곳이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주의 전북불교회관이 매장을 확보하고 시장조사에 들어갔으며, 조계사·화계사·동화사·갑사 등이 내년 초 생활협동조합 매장 개장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소한 20여개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생협이 사찰의 또다른 문화로 자리잡을 날도 멀지 않았음을 예견케 한다.

이들 사찰의 생협 매장은 모두 봉은사와 마찬가지로 200여종의 각종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을 불자와 지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모두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열며, 하루 평균 200~300여명이 이용한다. 휴일이면 이용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조직해 운영한다.

현재의 사찰 생협은 석왕사는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 해부터 생긴 것들이다. 그 수는 적지만 2년만에 다섯 곳이 생긴 것은 사실상 빠른 속도의 성장이다. 그리고 이처럼 단시일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생협의 이념이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 생협의 역사는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천 석왕사는 경내에 15평 규모의 매장을 설치하고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직송해 불자와 지역민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300여종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갖추고 전화주문도 받는다.

그러다가 지난해 도법스님이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생태공동체를 형성하고 불교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찰 생활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마침내 98년 8월 영화사가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매장을 개설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석왕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불교귀농학교를 모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에서 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인드라마 생명공동체는 전국 40여곳의 유기농 생산지에서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한 생활협동조합은 가톨릭에서 먼저 시작됐다. 그리고 개신교에 이어 불교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생협의 근간 이념은 불교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상생(相生)'의 이념과 겹치는 점에서 어느 종교보다도 발전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사찰 생협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속도라면 5년 이내에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창출해내는 지역의 '시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생활협동조합이 대자재비의 실천운동으로, 더불어 사는 공생(共生)·상생(相生)의 생활문화로 뿌리내릴 날도 멀지 않았다.

봉은사·능인선원등 6곳 운영중 20여곳 내년 개장준비 한창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석보살이 다른 불자들에게 유기농 시금치를 적극 권한 것은 이용해보면 결과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최근 유전자 조작품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변질된 수입쇠고기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우리 식탁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찾기란 어려운 실정. 게다가 수입되는 먹거리가 갈수록 늘어나 우리 농촌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먹거리를 통해 식탁의 안전을 되찾고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 유기농 먹거리와 생협은 '식탁보안'과 수입 의존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7월 남짓한 봉은사 생협매장은 쌀·배추·무우·오이·호박 등 온갖 농산물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간장, 된장 등 가공식품류와 물비누 등 천연세제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다. 슈퍼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우리말로 만든 과자들도 있고, 낫신 포장의 라면도 있다. 모두 유기농산물로 가공된 제품들이다. 상품마다 표시된 원산지과 재배법을 보면서 불자들은 이것저것 고르느라 손놀림을 재촉한다.

지난 7월 문을 연 봉은사 생활협동조합은 절에 다니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에게도 인기가 높다.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산지와 연결해

직판하니 믿을 수 있고 따로 시장엘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찰내에서 유기농산물을 직판하는 생활협동조합은 봉은사를 비롯해 능인선원·영화사·수원포교당·광명 금강정사·부천 석왕사 등 전국에 걸쳐 모두 6곳이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주의 전북불교회관이 매장을 확보하고 시장조사에 들어갔으며, 조계사·화계사·동화사·갑사 등이 내년 초 생활협동조합 매장 개장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소한 20여개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생협이 사찰의 또다른 문화로 자리잡을 날도 멀지 않았음을 예견케 한다.

이들 사찰의 생협 매장은 모두 봉은사와 마찬가지로 200여종의 각종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을 불자와 지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모두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열며, 하루 평균 200~300여명이 이용한다. 휴일이면 이용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조직해 운영한다.

현재의 사찰 생협은 석왕사는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 해부터 생긴 것들이다. 그 수는 적지만 2년만에 다섯 곳이 생긴 것은 사실상 빠른 속도의 성장이다. 그리고 이처럼 단시일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생협의 이념이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 생협의 역사는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천 석왕사는 경내에 15평 규모의 매장을 설치하고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직송해 불자와 지역민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300여종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갖추고 전화주문도 받는다.

그러다가 지난해 도법스님이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생태공동체를 형성하고 불교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찰 생활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마침내 98년 8월 영화사가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매장을 개설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석왕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불교귀농학교를 모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에서 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인드라마 생명공동체는 전국 40여곳의 유기농 생산지에서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한 생활협동조합은 가톨릭에서 먼저 시작됐다. 그리고 개신교에 이어 불교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생협의 근간 이념은 불교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상생(相生)'의 이념과 겹치는 점에서 어느 종교보다도 발전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사찰 생협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속도라면 5년 이내에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창출해내는 지역의 '시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생활협동조합이 대자재비의 실천운동으로, 더불어 사는 공생(共生)·상생(相生)의 생활문화로 뿌리내릴 날도 멀지 않았다.

사찰 생활협동조합

봉은사	02-545-1448
능인선원	02-577-5800
영화사	02-3437-4363
금강정사	02-893-2731
수원포교당	0331-255-2692
석왕사	032-668-0072



▶서울 능인선원 생협. 생산지에서 직송된 먹거리를 직판해 믿을수 있고 시장엘 따로 가는 불편도 없 수 있다.

인드라마 생명공동체의 역할

사찰 생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공동대표 도법·성관·정덕스님 박광서 정해숙)의 역할이 컸다. 인드라마 생명공동체는 현재 각 매장에 유기농 물품을 공급하는 중간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전국 사찰로의 생협 확대를 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인드라마생명공동체를 출범시키기 전까지는 도농공동체운동본부라는 명칭으로 불교귀농학교 및 생태학교 운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농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방법론이 대두됐고 사찰 생협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뜻있는 몇몇 사찰과 협의를 거쳐 현재의 사찰 생협을 일궈냈다.

전국사찰로의 생협 확대 추진 환경·식량문제 불교적 대안제시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사찰 생협이 불교사상을 잘 알릴 수 있고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환경과 식량문제를 불교사상에 입각해 풀 수 있는 '문명대안운동'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생협운동의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선 사찰에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택하고 있는 생협 운영방식은 생협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생협 활성화로 돌리는 피드백(feed back) 시스템. 생산지에서 사찰을 잇는 중간유통 단계에서 얻은 이익금은 귀농학교 등 각종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걸린 전문가들이 다시 일선 사찰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생협활성화를 위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협운동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불자들은 신앙이념과 생활이념이 따로따로인 이중적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 생협은 생활과 신앙을 결합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인간성 회복·환경·생명·공동체 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현재 생활협동사업부부를 통한 생협운동과 귀농전문학교, 귀농학교, 불교생협학교, 우리웃 강좌와 우리 웃을 보급하는 물푸레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2)3281-1888



○2분별좌상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 괴산 마애불 명좌상.

마애불을 찾아서

괴산 마애불 명좌상
 벼랑위 감실안 두 불상 배치
 평면적 조각기법...고려때 조성

충북 괴산의 높은 벼랑위 감실안에 앉힌 이 마애불은 두 불상을 나란히 배치한 명좌상으로, 희귀한 예로 주목된다. 넓적하면서도 함있는 얼굴에 가늘고 긴 눈, 넓적한 입 등의 조각수법은 평면적으로는 앙상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얼굴 전반에 미소가 번지고 있어 한결 자비로운 느낌을 준다. 신체 또한 반듯한 어깨, 평평한 가슴 등으로 형식화되었으며 통견의 법의 주름은 푸던 선각으로 표현되었다. 광배에는 화불이 조각되어 있으나 세부수법은 미묘해 분별하지 않다. 이러한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두 불상을 나란히 조각한 예는 죽령 마애불, 대전사지 출토 청동2분별좌상 등이 있다. 괴산 마애불 명좌상은 <법화경>의 사상을 반영한 석가 다보 2분별좌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2분별좌상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통 재98호.

글·사진=불자대학교사건연학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달마는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송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액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엔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3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프로그램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 카드는 일면에 달마도의 대가 제천 용봉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크게(대형 5cm×7.5cm, 소형 3cm×5cm)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포팅함으로써 깨끗하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처, 이불 등 어떠한 문양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넷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무원배송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도구박자(27cm×32cm)화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해한 운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성만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1만원, 3개(set):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판매처: 한국 지엔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